

▶ 주요 지표 일일 등락률

S&P 500	7,670.84pt	-0.17%
DOW	51,349.92pt	-0.26%
NASDAQ	26,797.54pt	-0.09%
STOXX 600	638.08pt	-0.09%
美 國채 10년물	5.24%	0.01bp
美 國채 2년물	4.88%	-5.40bp
달러 인덱스	101.39pt	0.19%
국제 유가 (WTI)	\$89.38	-3.48%

자료: Bloomberg, 삼성증권



리서치센터 리포트
바로가기

금리 경계감 지속되며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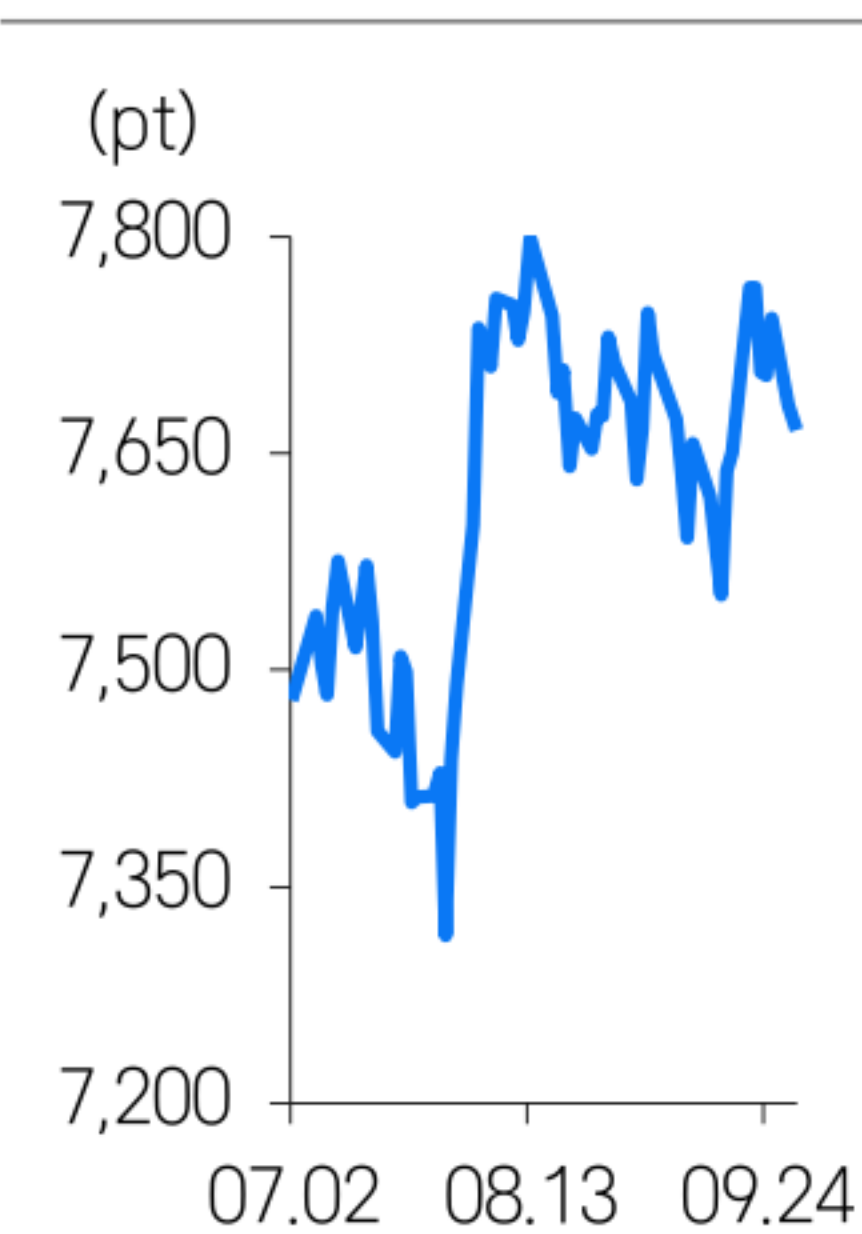
미 국채 30년물, 5.6% 선에 근접하며 2002년 이후 최고치 기록
3대 지수 약세, 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.32% 상승 마감

지난밤 뉴욕 증시는 시장 금리 상승에 대한 경계감이 잔존한 탓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. 당일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밑돌았고 유가 역시 하락했으나, 미국 장기 국채 금리는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. 만기가 가장 긴 미 국채 30년물의 경우 전일 대비 2bp가량 상승한 5.57%를 기록하며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. 다만 10년물은 보합세를 나타냈고, 정책 금리 전망에 민감한 2년물은 컨센서스를 하회한 8월 기업 구인 건수와, 12년래 최저치를 기록한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 지수 등에 더 크게 반응하며 전일비 5.4bp 내린 4.88%로 마감했습니다.

그러나 이날 연설에 나선 연준 위원들은 추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.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와 마이클 바 연준 이사, 그리고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준 총재 또한 연준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.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의 경우, 현재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소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시장의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. 현재 금리선물시장은 10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이 단행될 확률을 47%로 반영하고 있으며, 이는 지난주 70% 대비 다소 낮아진 수치입니다. 다만 12월까지 한 차례 더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여전히 기정사실로 시장에 프라이싱되어 있습니다. 한편 WTI 유가는 최근 페르시아만 원유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다수 기관의 분석이 회자되면서 전 거래일보다 3.48% 하락한 89.3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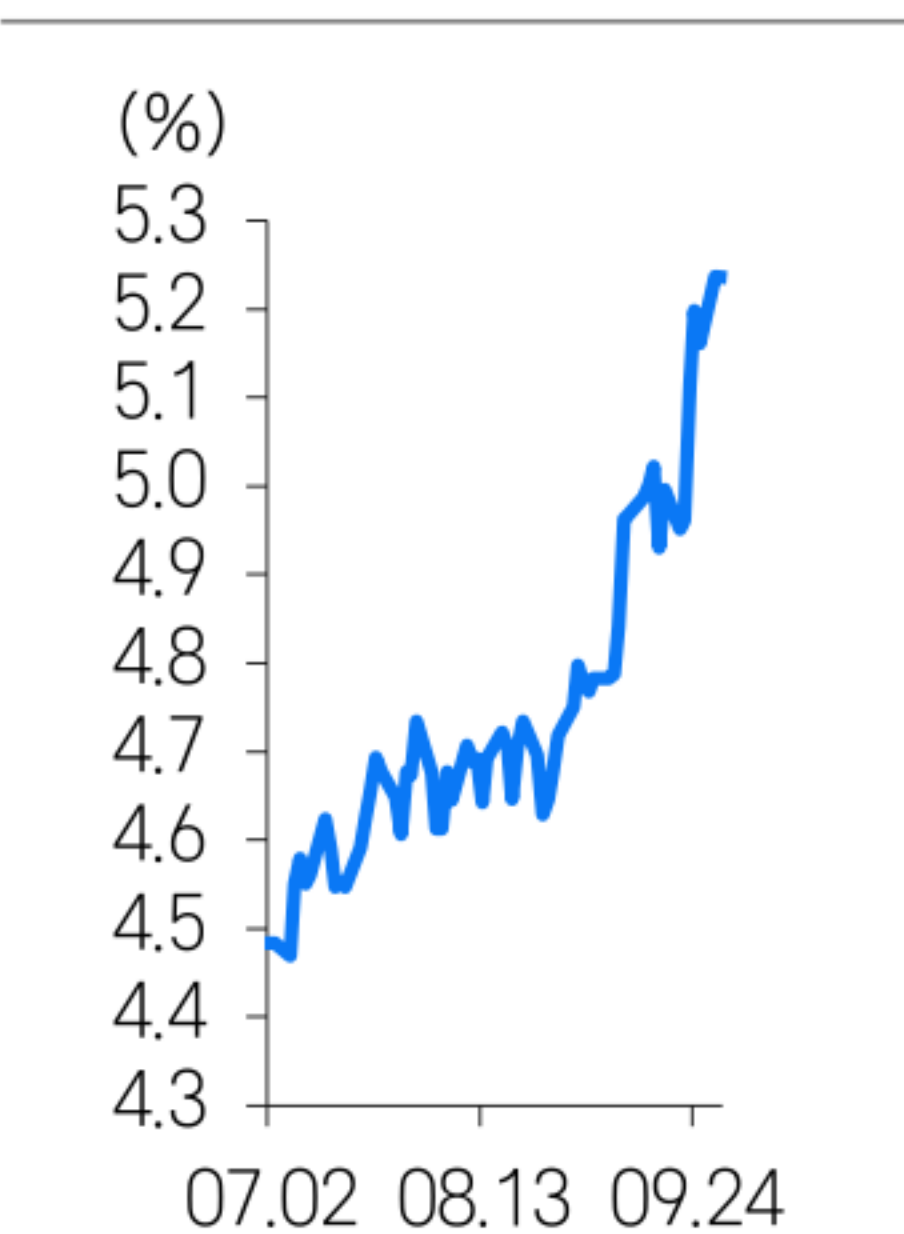
이날 S&P500은 0.17%, DOW는 0.26% 각각 하락한 반면, NASDAQ은 0.09% 내리며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. 이와 대조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.32% 오르며 상대적인 선전을 기록했습니다.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둔 마이크론이 1.05% 상승한 가운데 SK하이닉스 ADR은 2.62% 올랐으며, ASML(+3.56%)과 램 리서치(+2.99%) 등 장비주들도 동반 강세를 띠었습니다.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의 흐름은 엇갈렸습니다. OpenAI가 상시 AI Agent 서비스를 공개했으나 시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, 기존 선점 업체인 메타 주가가 3%가량 올랐습니다. 반면 애플의 경우 에이전트 서비스 활성화가 앱스토어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2.66% 밀렸습니다. 스페이스X가 3.24%, 브로드컴이 1.58% 상승하며 비교적 강한 흐름을 보였고, 테슬라는 1.29%, 엔비디아는 0.72%의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.

S&P500 3개월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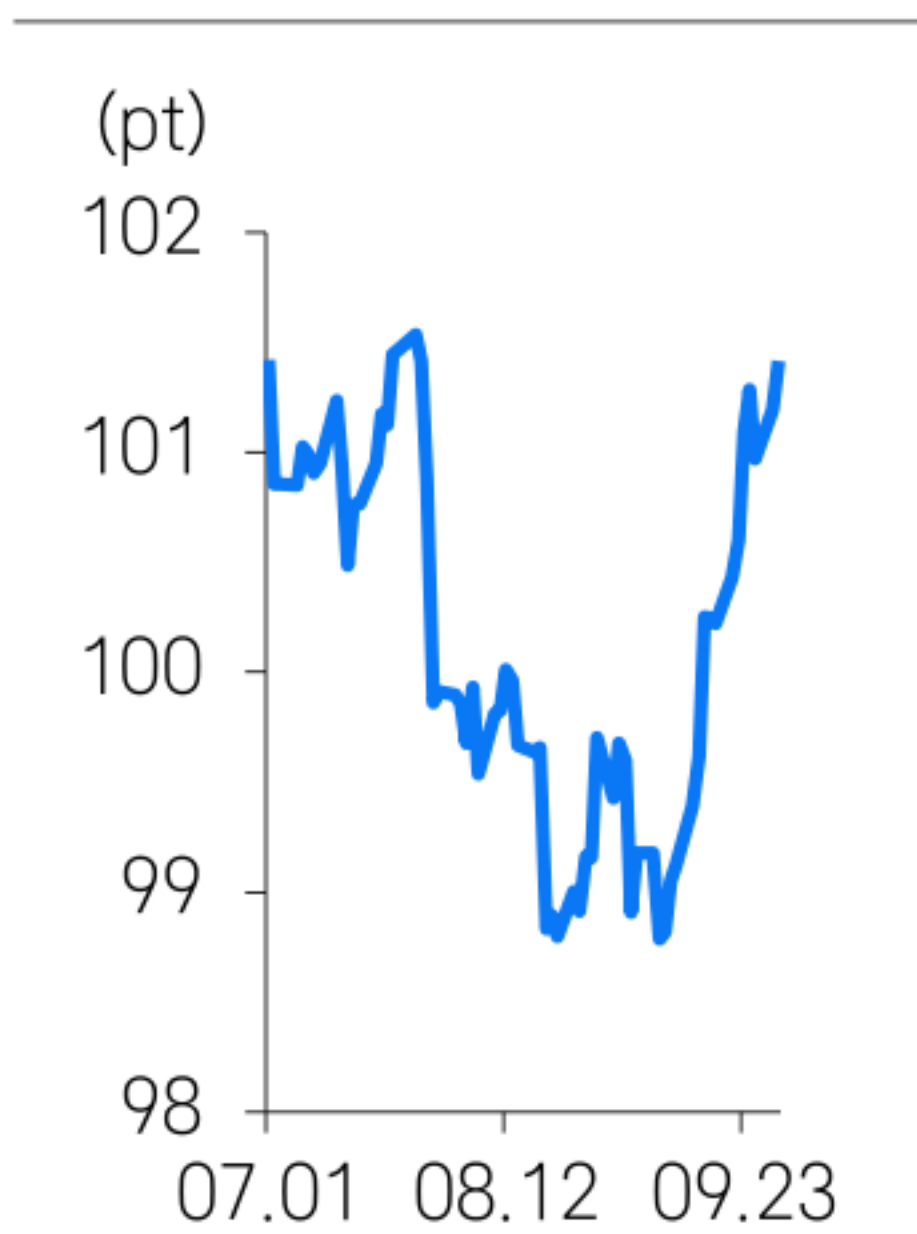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삼성증권

美 國채 10년물 3개월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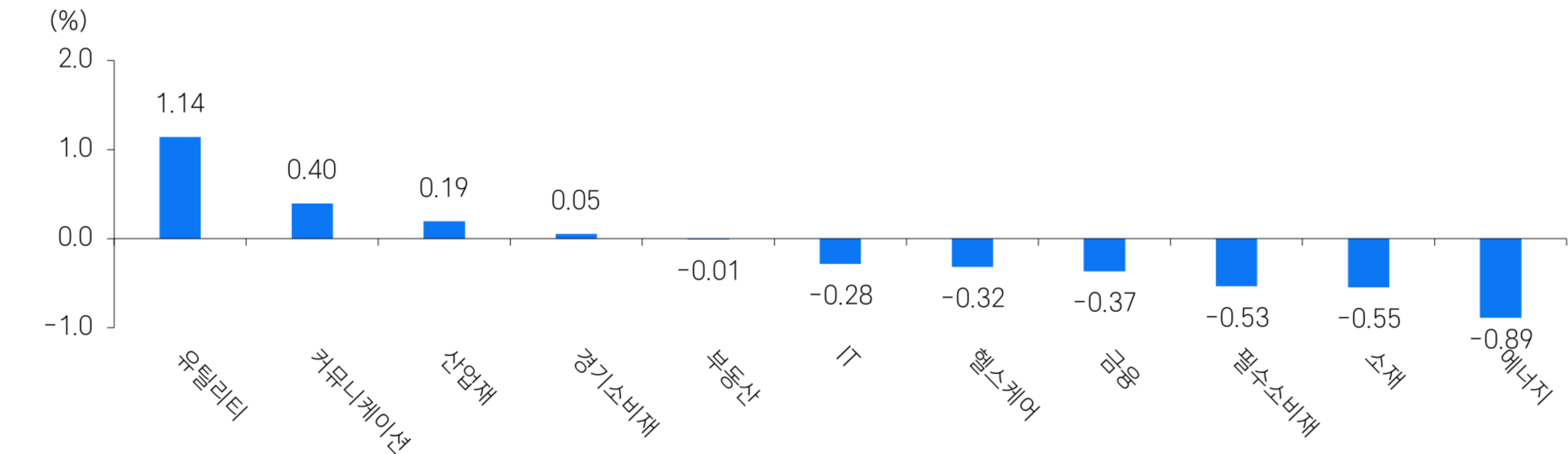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삼성증권

달러 인덱스 3개월 추이



자료: Bloomberg, 삼성증권

업종별 수익률



참고: S&P500 GICS Level 1 기준
자료: Bloomberg, 삼성증권

S

S&P100 수익률 상하위 종목

▲ UP	종목명	수익률	섹터
1	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	5.2	정보기술
2	오라클	3.9	정보기술
3	메타 플랫폼스	3.2	커뮤니케이션 서비스
4	람리서치	3.0	정보기술
5	보잉	1.8	산업재

▼ DOWN	종목명	수익률	섹터
1	메드트로닉	-2.7	건강관리
2	애플	-2.7	정보기술
3	T-모바일 US	-2.1	커뮤니케이션 서비스
4	퀄컴	-1.8	정보기술
5	월마트	-1.8	필수소비재

참고: 섹터는 GICS Level 1 섹터 분류 기준
자료: Bloomberg, 삼성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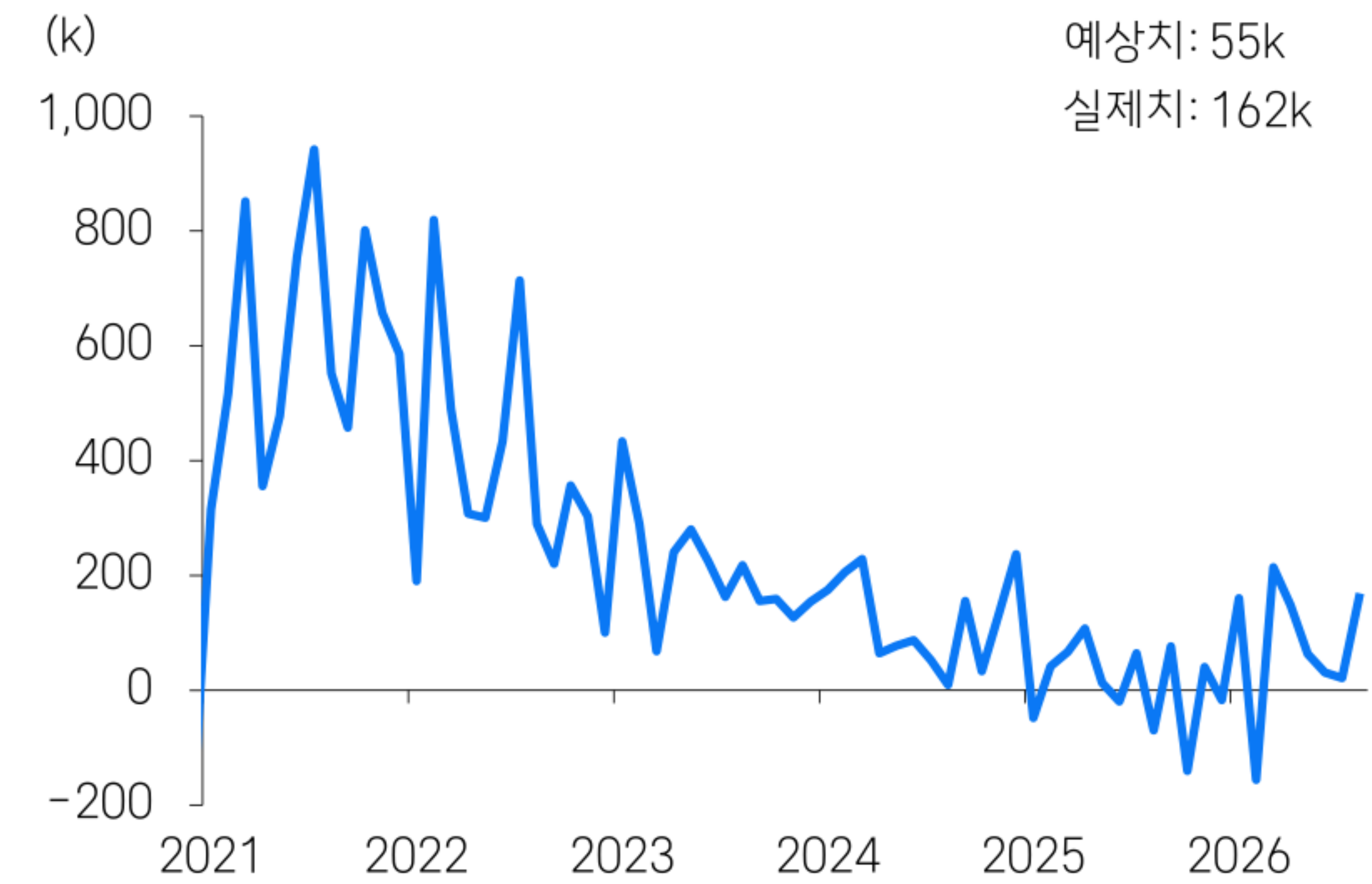
한국 인덱스 관련 지표

지표	수익률	1주일	1개월
MSCI KOREA ETF	1.92	-2.87	3.83
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	1.32	-0.48	10.11
MSCI AC ASIA Pacific ex Japan	-0.48	-2.45	-1.51
MSCI EM ETF	0.30	-2.46	0.39
NDF 원화 환율	-0.37	1.32	1.19

참고: ETF는 iShares ETF 기준
자료: Bloomberg, 삼성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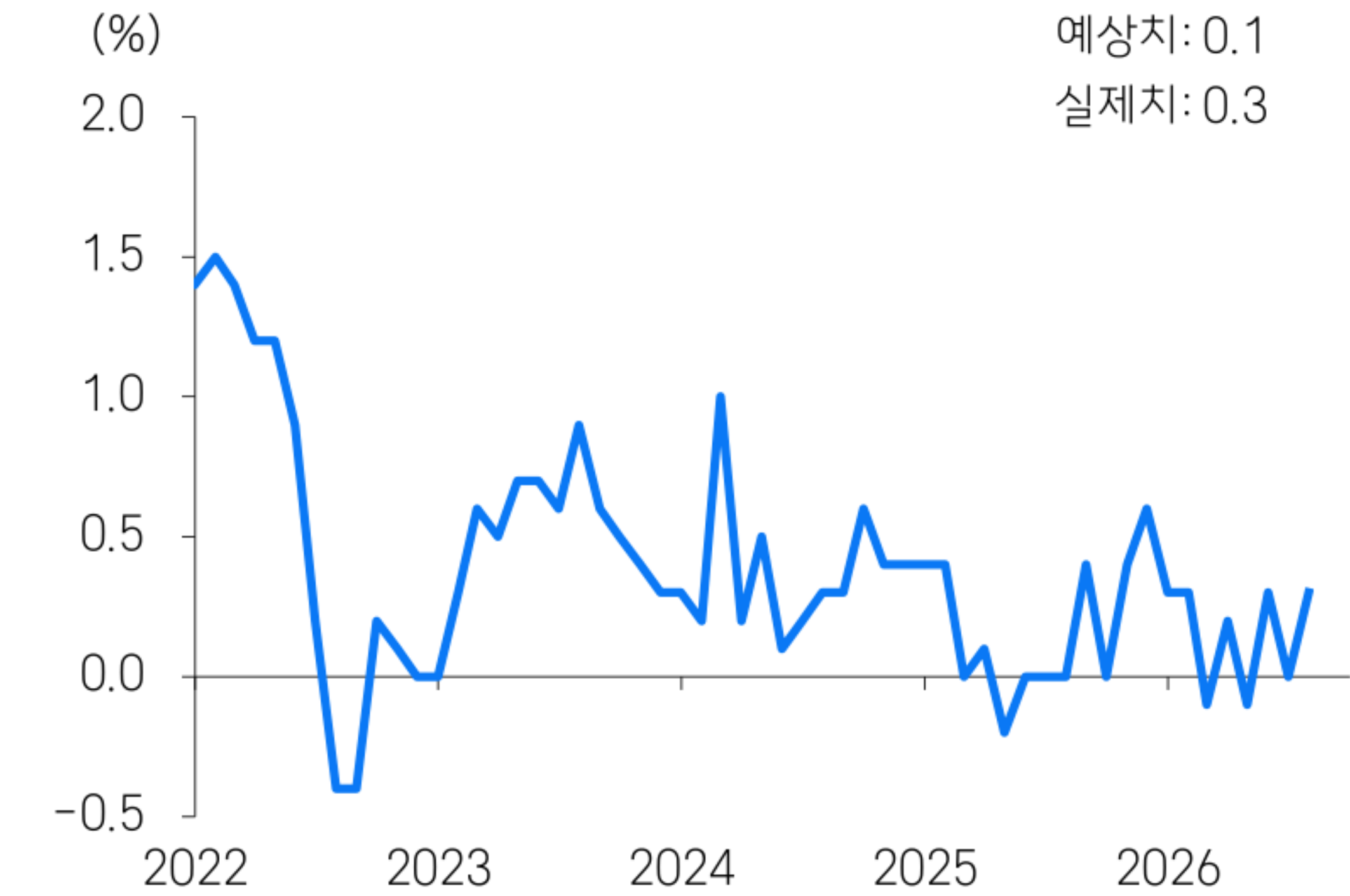
주요 경제 지표

미국 9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 지수



자료: Bloomberg, 삼성증권

미국 7월 FHHA 주택가격 지수 전월 대비



자료: Bloomberg, 삼성증권

Compliance notice

-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.
-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.
-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
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-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.

Samsung Securities

Samsung Securitie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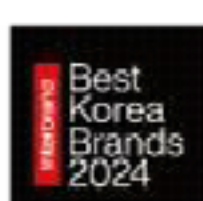
삼성증권

삼성증권주식회사
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(삼성전자빌딩)
Tel: 02 2020 8000 / www.samsungpop.com

삼성증권 Family Center: 1588 2323

고객 불편사항 접수: 080 911 0900



Member of
**Dow Jones
Sustainability Indices**
Powered by the S&P Global CSA